가정통신 2020 제4호 자/녀/사/랑/하/기

#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SMHRC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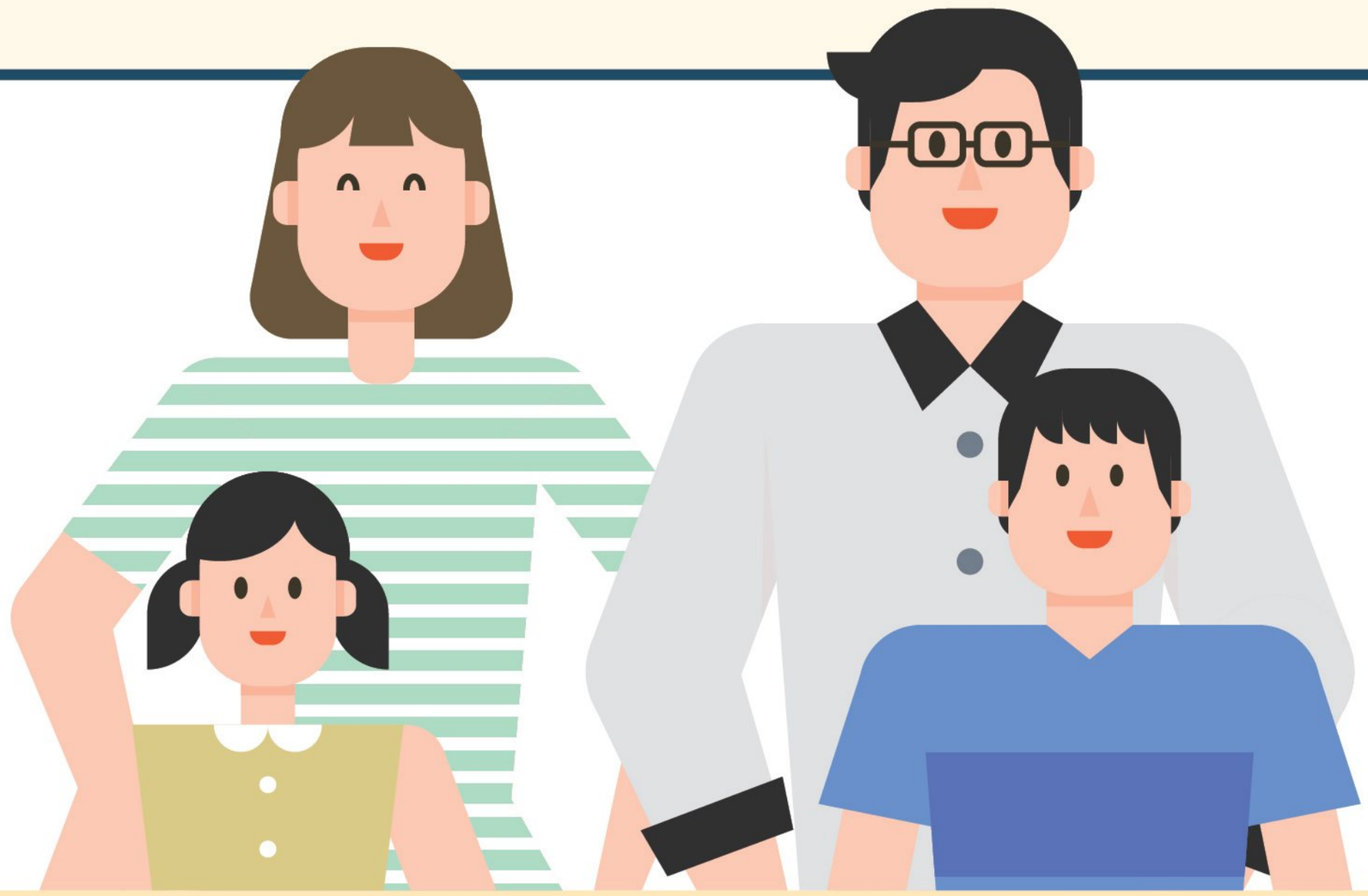
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
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.

## 이번 뉴스레터에서는

**❶ 정신질환을 둘러싼 오해와**

**❷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**

**올바른 정보**를 살펴보겠습니다.



오해 1.

# ‘정신질환’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?



유전

스트레스



기질

환경

신체질환이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듯이
정신질환도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, 심리적
스트레스,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.

오해 2.

# ‘정신질환’은 성인에서 흔하다?




WHO에 따르면 **소아청소년의 약 20%가**
**정신질환**을 앓고 있고 성인 정신질환의
**약 50%가 14세 이전에 발생**한다고 합니다.

오해 3.

# ‘정신질환’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?




무슨 병이든 **빨리 발견하여 치료**하는 것이
빠른 회복을 돕는 것처럼 자녀의 인지 · 정서 · 행동 문제가
학교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
**정신건강 전문가와 정확한 평가와 상담**을 거쳐
**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**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오해 4.

#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?




##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환자의

##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.

·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(만 14세 미만의 경우,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)
·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, 이후 폐기됩니다.

## 군 입대나 취업에도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오해 5.

#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?




개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.

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.

오해 6.

#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만 준다?




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치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
단계적 약물치료나 비약물적 치료(놀이치료, 가족치료,
인지행동치료 등)를 단독 혹은 병행으로 처방합니다.

오해 7.

#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몸(뇌)에 해롭다?




## 적절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은 여러 단계의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
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.

오해 8.

#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된다?




## 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.

·약물은 증상이 호전되면 감량하여 중단하면 됩니다.

아이가 **마음 건강히 성장**할 수 있도록
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의 문턱을 넘어
**적절한 치료**를 받도록 도와주세요.

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
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(02-6959-4542)에 문의해주세요.

SMHRC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본 뉴스레터는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
“자녀 사랑하기” 4호이며,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.